

『율리시스』의 모험과 귀가의 주제

이 종 일

조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스』(*Ulysses*)의 이야기가 갖는 기본 구조를 파악하는 접근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유력한 것 하나는 모험(adventure)과 귀가(home-coming)의 모티프일 것이다. 『율리시스』가 구성상의 모태로 삼고 있는 호머의 『오디세이』(*Odyssey*)가 주인공 오디세우스(Odysseus)가 트로이 전쟁을 끝낸 후 고국 이사카(Ithaca)에 돌아오기까지의 항해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모험담으로 되어 있듯이, 이 소설의 이야기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주인공 리어폴드 블룸(Leopold Bloom)이 아침에 집을 떠나 더블린 시내 곳곳을 방랑하며 갖은 모험을 겪은 끝에 한밤에 귀가하는 과정을 그린다. 세부적인 차원에서도 블룸은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에 계기를 제공하거나 자의 또는 타의로 연루되어 흥역을 치른 뒤 제자리로 돌아오는 패턴을 되풀이한다.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돌아오는,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의 갈등 혹은 긴장을 나타내는 이 구조적인 패턴은 ‘동(動)과 정(靜)’이라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조이스가—작중인물의 입을 빌어서이긴 하지만—동과 정을 본격적으로 담론으로 다룬 것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다.

『조상』에서 스티븐(Stephen Dedalus)은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을 구별하는 심미적 기준으로 동(kinesis)과 정(stasis)을 제시한다.

부적절한 예술에 의해 촉발되는 감정은 욕망이든 혐오든 동적(kinetic)이야....
따라서 그런 감정을 촉발하는 예술은, 외설적인 것이든 설교적인 것이든, 부적
절한 예술이지. 미학적인 정서(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는 따라서 정적
(static)이야.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욕망이나 혐오를 넘어서게 되지. (P 205)

동과 정에 대한 초보 미학자 스티븐의 개념규정은 전자를 부정적으로, 후자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분법적 단순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서 다분히 판정적이고 차별적이며, 그나마 예술 분야에만 국한되어 적용된다.

그러나 『율리시스』에 반영된 조이스의 개념은 예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인생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유연한 것이다. 『율리시스』의 이사가장(U 17.392-416)에는 동과 정의 세트 대신에 그 변형이랄 수 있는 “동적(kinetic)”과 “잠재적(potential)”의 세트가 등장한다. 교리문답자는 “독창적인 생애 최초의 시”를 쓴 열한 살 소년의 불륨을 가리켜 “잠재적 시인”이라 칭하고, 연애편지를 쓰는 스물두 살 청년의 불륨을 가리켜 “동적 시인”이라 칭한다. “잠재적”이란 말은 원천이나 근원에 가까운 개념으로 그 궁극적 형태가 바로 “정적(static)”이다. 이 점은 “잠재적 시인”이 “최초”, “독창적”이란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는지, 그 시가 “L. Bloom”으로, 끝맺는 나르시시즘을 보인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반면에 동적 시인 불륨의 시는 나중에 아내가 된 몰리(Molly)에 대한 강한 동적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불륨의 성향이 구심적인 자기중심주의에서 원심적인 타자지향성으로 옮긴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조이스가 굳이 ‘정적’이란 말 대신에 ‘잠재적’이란 말을 택한 것은 전자가 지닌 고착과 정체성의 뉘앙스를 피하고 후자가 지닌 변화와 긴장의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만큼 『율리시스』에서 인식은 한결 성숙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동과 정’의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개념구분상의 혼돈을 막고 명료한 이해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동과 정의 견지에서 볼 때, 『율리시스』에서 모험과 귀가라는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적 차원의 두 가지 동인은, 제안컨대, ‘호기심’(curiosity)과 ‘안심’(reassurance)이다.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롭거나 낯설거나 일탈적인 어떤 것을 좇거나 알아내거나

경험하고자 하는 충동은 변화와 자유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 팽창적 충동에는 또한 불안과 무질서가 따르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거나 오래되었거나 익숙하거나 정착된 어떤 것을 붙들거나 확인하거나 반복하려는 성향은 정체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집중적 성향은 그 대신 안심과 질서를 보장한다. 블룸은 수시로 그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서 이 두 가지 모순적인 동인을 드러낸다. 실상 그의 마음은 정적인 욕구와 동적인 욕구의 전투장이라 할 만하다.

‘호기심’은 블룸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올리시스』의 줄거리를 특징짓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블룸이 관찰하기에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거나 그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종종 호기심 때문이다. 그는 한 문방구 상인에게 “두 명의 날씬한 젊은 여성이 앉아서 편지를 쓰는 투명한 전시마차(showcart)”에 관한 광고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일을 떠올리는데, 그 아이디어는 “여자가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누구나 알고 싶어 미칠 걸.... 끼어들고 싶거든. 여자들도 그렇고. 호기심이지.”라는 그의 상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호기심에 호소하는 효과에 바탕한다(U 8. 131-36). 블룸 자신도 주변의 거의 모든 일들에 호기심을 느낀다. 예컨대, 교통과 도로 간의 인과관계는 “순전한 호기심이라는 동기에서 따져보는 것이 그에게는 흥미로울 것 같았다”(U 16.565-66).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행동 중 상당수가 호기심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사와 은밀한 연애편지 나누기, 스티븐을 따라 사창가 가기, 그의 아내 몰리의 성적 매력에 관심을 갖도록 스티븐을 은근히 꼬드기기, 몰리가 보일런(Boylan)과 정사를 갖는 일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계획까지 하기 등의 행동들이 모두 그러하다.

재미있는 것은 블룸 못지 않게 호기심의 화신이라 할 만한 몰리가 자신의 사전을 남편 블룸이 젊은 남자 스티븐에게 보여주는 호기심어린 행동에 대해 호기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 분 아들[스티븐]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남편 말로는 작가인 데다 이탈리아어와 대학교수가 될 예정이라는데 그렇다면 과외나 받아볼까 그 총각한테 내 사진을 보여주다니 무슨 속셈일까 잘 나온 사진도 아닌데 유행을 타지 않는 주름진 옷을 입고 찍을 걸 그랬나 그걸 입으면 아직도 젊어 보이잖아 그 사진을 아주 주어버린 건 아닌지 궁금해 하긴 아예 나까지 줘도 안 될 건 없지(U 18.1300-05)

여기서 물리는 스티븐과 자신의 노출욕 그리고 스티븐과 맺게 될지도 모를 관계에 대한 갈망 등을 통해 비상한 호기심을 드러낸다. 물리의 호기심은 “궁금해”(I wonder)라는 블룸과 물리가 공히 좋아하는 어구에 잘 반영되어 있다. 반응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이 어구는, 어느 비평가가 주목하듯, 이 어구를 사용한 내면독백이 “타자로서의 자아에게 말을 붙인” 내면적인 대화임을 가리킨다(Wales 81-82). 다시 말해, 호기심이란 자아를 벗어나 타자를 좇으려는 억압된 동적 충동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그 필연적 결과는,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질서를 뒤엎는 것이다. 블룸과 물리의 호기심은 그들이 물리와 스티븐을 부적절한 관계로 엮으려는 충동을 느낄 때처럼 흔히 결혼 질서와 사회 규범을 깨뜨리는 쪽을 지향한다. 자유와 변화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하는 호기심은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불안함과 심난함에 시달리게 되는 대가를 요구한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호기심은 사람을 불안과 두려움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어둠’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데에는 ‘빛’이 필요하다. 이는 「노시카」(“Nausicaa”) 장에서 상징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저녁 어스름 무렵 샌디마운트 해변(Sandymount Strand)에서 처음 보는 처녀 거티(Gerty)의 치마 속을 훑쳐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충족시킨 후, 블룸은 ‘어둠’이 깔릴 때 베일리(Bailey) 등대의 ‘불빛’이 호우스 언덕(Howth Hill)에 비치는 것을 지켜보는데, 호우스 언덕은 그가 물리와 맨처음 나눈 낭만적인 밀회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가 거티와 성적인 회를 나눈다는 것—이는 ‘낮선’ 처녀에게 시각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비도덕적으로 ‘매력’을 느꼈다는 점에서 동적인 행동이다—이 죄의식과 공허감을 수반하고, 그에 따라 그로 하여금 그의 ‘합법’적인 아내이자 정서적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물리와의 정적인 재결합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종류의 정신적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가 언급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둠을 무서워하고” “빛은 일종의 안심의 원천”(U 13.1069-71)이다. 바로 이 때문에 새 것과 옛 것을 동시에 수용하는 모순적인 태도, 즉 “난 새 것을 원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지만”(U 13.1104-05. 필자강조)이라는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

조이스는 「써시」(“Circe”) 장의 끝에서 “안심”의 의의가 강조되는 극적 차원과 언어적 차원의 결합을 제시한다. 그 자신 환상을 통해 온갖 종류의 비정상적인 변형을 겪고 스티븐 또한 굴욕적인 사기행각을 당하는 곤경에서 탈출한 후, 블룸

은 그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코니 켈러허(Corney Kelleher)가 자리를 뜨면서 타고 가는 마차의 딸랑 소리를 듣는다.

마차는 투랄룸(tooraloom) 딸랑거리며 길모퉁이를 돌아 투랄룸. 코니 켈러허가 다시 손짓으로 안심룸(reassuralooms). 블룸이 손짓으로 코니 켈러허에게 안심룸(reassuraloomtay)을 확인룸(assuralooms). (U 15.4916-19)

무질서한 장소에서 겪은 위험한 모험으로부터 정상적인 현실로 돌아온 안도감이 어찌나 컸던지, 켈러허가 탄 마차가 내는 “딸랑(jingle)” 소리가 실상 물리의 침대가 내는 소리이자 그 침대에서 블룸의 정사를 나누기 위해 보일런이 타고 가는 마차가 내는 소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블룸의 마음을 극도로 심란하게 만들 만도 하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소리가 오히려 블룸을 안심시킨다. “투랄룸”(tooraloom) 소리가 “안심룸”(reassuraloom), 즉 “블룸을 안심시킨다”(reassures + Bloom)는 의미의 소리로 변형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또한 나중에 블룸이 자신의 집으로 스티븐을 데려가 그 날 중 아마도 가장 행복한 순간에 “안심하며(reassured)” “안심시켜주듯”(Reassuringly) 스티븐에게 새로운 전설을 노래하도록 부추기는 것도 이와 맥이 닿는다(U 17.795-800).

심리적 차원에서 ‘호기심’과 ‘안심’이 형성하는 정-동 갈등은 소설의 행동 차원에서는 ‘모험’과 ‘귀가’(또는 ‘추방’<exile>과 ‘가정생활’<home life> 사이의 갈등에 대응된다. 이것은 조이스의 모든 작품을 꿰뚫는 줄기찬 모티프이다. 예를 들어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 실린 작품들 중 「우연한 만남」(“An Encounter”), 「애러비」(“Araby”), 「에블린」(“Eveline”)과 같은 단편들은 ‘모험’에 대한 환상과 환멸을 주제로 다룬다. 그 가운데 「우연한 만남」의 일인칭화자는 모험을 꿈꾸는 인간의 동기를 모범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구속적인 영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면 나는 다시 목말라 했으니, 그것은 격렬한 감흥을 향한, 그 무질서한 이야기책들만이 내게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탈출을 향한 갈증이었다. 나에게 진짜 모험이 일어나기를 바라다보니 마침내 저녁마다 하는 병정놀이 흥내가 오전에 학교에서 보내는 일상처럼 따분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진짜 모험은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법이었다. 그것은 밖으로 나가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D 12)

주인공 소년에게 진짜 모험은 “집”에서 보내는 “일상”의 “구속”과 “홍내”에서 벗어나 “격렬한 감흥”과 “무질서”를 찾아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진짜 모험”에 대한 환상은 리퍼(Liffey)강가 별관에서 우연히 만난 녹색 눈의 사내가 던져준 변화 없는 단조로운 반복의 인상, 즉 “그 남자가 암기한 어떤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듯한, 혹은 그 남자의 마음이 자신의 연설에서 구사한 몇 마디 말에 스스로 도취되어 똑같은 궤도를 천천히 돌고 도는 듯한”(D 18) 인상에 의해 산산히 부서지고 만다. 이와 비슷하게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스티븐은 유년시절 세상 어딘가에서 “녹색 장미”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는가 하면 (P 12), 소년시절 “그로 하여금 메세데스(Mercedes)를 찾아 저녁마다 이 정원 저 정원을 방황하게 만들었던 싱송생송함”(P 67)에 쫓기기도 하다가, 급기야 청년시절에는 얽매임이 없는 자유를 찾아 스스로를 해외로 유배시키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나중에 『율리시스』에서 밝혀지게 되는 것처럼 환멸과 실망을 안고 귀국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유랑자』(Exiles)에서 리처드(Richard)는 로버트(Robert)에게 가르친 것처럼 “정열—자유롭고 뒤흔치고 억제할 수 없는 정열—만 있는 맹목적인 순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노예들이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의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E 99)이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아내 버사(Birtha)와 로버트 사이의 불륜관계를 조장하는 모험을 시도한다. 그러나 그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극단적인 정신적 회의가 남긴 깊은 상처는, 그의 고백대로, 너무나 배겨내기 힘든 것이어서 “아, 나의 이상한 열정적인 사랑이여, 다시 내게 돌아와줘요”(E 162)라는 아내의 마지막 호소에 응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도달한다. 심지어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조차 예외는 아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모든 차원—존재론적·언어적·설화적—에서 수행되는 현저하게 모험적인 실험의 화신이라 할 만하지만, 다소 미약하나마 기본적으로는 순환적 귀환의 틀에 따라 구조의 골격이 잡혀 있다.

모험과 귀가의 모티프는 『율리시스』에서 더욱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주인공이 귀가하는 도중에 벌어지는 일련의 모험담을 다룬 호머의 『오디세이』에 대응을 이루는 조이스의 『율리시스』 또한 모험을 향한 원심적 충동과 귀가에 대한 구심적 욕구 사이의 갈등을 주제로 삼는다. 주인공 블룸은 “동방의 어느 곳”(U 4.84), 개척이민회사(Agendath Netaim), 블루무살렘(Bloomusalem), 꽃동네(Flowerville) 등 “다른 세상”(that other world)에 대한 낭만적 상상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이상 세계에 대한 꿈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는 오래가지 못하고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하여 “세상의 정원이라. 그건 멋진 장소일 거야”라고 생각하며 그가 “극동”에 대해 품고 있는 환상은 “그곳이 그러하다면 놀랍다”는 희미한 회의주의에 자리를 내어준다(U 5.29-31). 마찬가지로, 개척이민회사의 이미지도 나중에 환상적인 색조를 벗어버리게 되면서 블룸에게 황금빛을 잃은 황무지로 인식된다(U 14.1086-87).

더욱 중요한 것은, 블룸이 단순히 이상 세계에서의 모험에 대한 몽상에 사로잡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험에 뛰어들다는 사실이다. 그가 뛰어드는 모험은 실로 다양하다. “부딪혀보자”(U 11.305)고 마음먹고 보일런을 따라 오몬드(Ormond) 호텔로 가는가 하면, 바니 키어넌(Barney Kiernan) 술집에서 호전적인 국수주의자에 대들기도 하고, 거티의 치맛자락 속을 훑쳐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가 하면, 스티븐을 따라 위험한 경험을 하게 될 밤거리(nighttown)를 찾아가기도 한다. 사창가에서 환영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의 어떤 물건이 지금 약간 불타고 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 불탄다”고 말함으로써 “런던이 불탄다”는 구절과 말 바뀌가며 하는 수수께끼 놀이를 넘지시 암시하는데(U 15.457-61) 여기서 그가 뜻하고자 하는 것은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그의 변화하는 정체성과 다양한 경험을 내포한 신기한 장면들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모험의 매력과 위험을 동시에 지닌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무는 법이 없다. 어김없이 그의 출발점을 곧 의식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보면, 마사(Martha)와 마리아(Mary)라는 성경적인 함축성을 지닌 두 이름을 짝지은 것과 노시가 장에서 거티와 동정녀 마리아를 대응시키고 비교하는 것은 블룸이 바람을 피우는 순간에조차 명칭상 마리아와 결부되는 몰리—Molly와 Maria는 둘 다 Mary의 별칭(nickname)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런 덕택에 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결국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마부휴게소에서 듣는 머피(Murphy)의 이야기가 모험-귀가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든지, 뒤이어 그가 마침내 몰리가 지키고 있는 집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집이라 할 수 있는 자아의 정체성을 되찾게 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그렇다고 해서 블룸의 모험이 헛수고라는 말은 아니다. 그의 귀환은 항상 변화를 수반하는 귀환이다. 모험이라는 것이 흔히 그렇듯 그의 모험도 실수나 죄의

식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험은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대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도와주고 그의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시련과 고난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스스로 터득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전화위복’(felices culpa)인 셈이다. 그의 고대 영웅적 선례인 오디세우스가 그랬듯, 그는 하나하나 겪어가는 위험한 모험에서 회생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거기서 어떤 지혜를 터득한 채 귀가함으로써 또 다른 모험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순환적 귀환의 전망에서 볼 때, 동적인 모험과 정적인 귀가 둘 다 결정적이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잠정적이고 불완전하다.

조이스 작품에서 귀환이란, 그것이 셰익스피어의 경우든, 로윈(Rowan)의 경우든, 블룸의 경우든,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경향이 있다. 회의(懷疑), 과정, 경험 따위의 유배 가치들이 안정, 질서, 진실 등 단란한 가정과 결부되는 가치들과 섞인 채 존속한다. 이와 비슷하게, 「썬시」장에서 반복되는 블룸의 자아정체성으로의 귀환들은 그에 수반되는 분열을 한층 높거나 강한 통일의 수단으로서 여긴다. (Valente 99)

자아와 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양태의 불완전하고 상호적이며 탄력적인 관계는 「이사카」장에서 “단일하고(내부관련적이고 ipsorelative) 변화하는(외부관련적인 aliorelative) 사람”의 “복합적이고 비대칭적인 거울상(像)”(U 17.1348-50)이라는 수사학적인 묘사를 얻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집조차도 절대적으로 고정되고 안정된 장소는 아니다. 집 또한 얼마간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블룸의 집을 지키는 안주인 몰리 역시 블룸과 비슷하게 모험과 가정생활 사이의 여행을 한다. 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마도 결혼한 이래 가장 큰 모험이라고 할 만한 보일런과의 정사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유배당하는 첫 단계가 될지도 모른다. 그 정사는 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그[블룸]가 나와 보일런이 엮이기를 원하기”(U 18.1254)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면 몰리의 유배가 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정사는 몰리가 평소 음탕한 모험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이 눈에 띄게 현실화된 것, 즉 가능한 것으로 실현된 가능성이다. 몰리가 상상 속에서 그려보는 스티븐과의 관계가 나중에 현실화된 가능성의 또 다른 예로 드러날지 모른다. 몰리가 보일런과 맺는 관계는 아마도 심각하게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스티븐과의 관계 역시 아마 가능성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정복되지 않는 영웅” 블룸은 앞으로도 물리의 “집”으로 남게 될 것이다. 실제로도 물리는 마지막 장인 피넬러피(Penelope)에서 다른 남자들과 성적인 모험을 하는 몽상을 한 후에 마지막에는 블룸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물리의 모험적인 충동을 고려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물리와 그리고 이 위대한 희극소설이 긍정적인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영광스럽게 어리석음으로 팽배한 채, 잠정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Bell 62). 왜냐하면 블룸과 물리 둘 다 수시로 상대방의 집을 비워 둔 채로 각자의 모험을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각자는 상대방이 때로는 거기로 돌아오고 때로는 거기에서 나갈, 즉 유배와 귀환이 반복되는 공간으로서의 집 노릇을 계속한다.

심지어 가정생활의 차원에서 정과 동 사이의 대립적 긴장이 유연하고 보완적인 역동성을 가진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기본적으로는 안정된 가운데 어느 정도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가정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모험을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모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배우자의 욕망에 대한 관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연성을 결했을 때, 집이란 맹목적인 성실성과 절제라는 엄격한 규율에만 얽매이고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억압과 무기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직된 질서가 지배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그리고 호기심과 모험충동에 대한 억제력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배신, 즉 불성실에 대해서도 가혹한 처벌만을 가하는 경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일탈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는 휴식과 새 출발 둘 다를 위한 궁극적 항구로서의 집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방해한다. 이렇게 경직된 경우, 가정생활을 지배하는 주된 정서는 안심이 아니라 질투가 된다. 호기심과 안심 사이의 상호적이고 포용적인 관계 속에서 규범으로부터 이따금 일탈하는 것이 창조적 자유를 복돋울 수 있는 반면, 호기심과 질투 사이의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는 일탈이 “빛에 대한 죄”로 치부된다. 전자의 관계에서 유연한 블룸의 말대로 “실수가 관대히 용인된다”(U 15.3835)면, 후자의 관계에서는 아직 융통성 없는 스티븐의 주장대로 “너그러움을 빼앗기 전에 정의를 행할 것”(U 15.3604)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과 물리 사이의 관계가 갖는 몇 가지 복잡한 양상의 특징을 이루는 것이 안심과 호기심 사이의 긴장이라기보다는 “질투와 호기심”의 변증법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예를 들어 우다야 쿠마(Udaya Kumar)는 질투를

진실의 수사학이라는 바탕 위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소극적이고 심오한 의지로 규정하고 호기심을 숭배(fetish)의 수사학에 입각한 표현욕의 한 양태로서의 적극적이고 피상적인 환상으로 간주한다.

질투는 참을 수 없는 불확실성, 상대방의 충실성에 대한 불확실성, 상대방 세계의 궁극적인 불가지성에 바탕을 둔 채 불안의 악몽을 빚어낸다. 반면에 호기심은 상대방 세계의 표면적인 세부사항에 사로잡힌 채 이 세부사항들이 즐겁게 새로운 모습을 띠는 환상을 낳는다. (34)

그러나 쿠마에게 “질투나 호기심 중 어느 것도 불륜과 몰리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지는 않지만 이런 개념 구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38)는 진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충동을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이율배반적인 것에 그친다.

그러나 정과 동 사이의 긴장은 호기심과 질투의 관계 대신에 호기심과 안심의 관계로 보면 훨씬 역동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샌디마운트 해변에서 성적인 쾌감을 즐긴 후에, 블룸은 거티의 “동정심을 느끼며 항의하는, 수줍게 나무라는 시선”을 받으며 아내 몰리를 성적으로 배신한 데 대해 후회를 느끼자마자, 비록 “그가 잘못하고 죄 짓고 방황했지만” 거티의 자애로운 시선 속에서 “용서의 말”을 발견한다(U 13.748-49). 결과적으로 볼 때, 어쩌면 블룸은 거티의 시선에 몰리의 태도를 투사시킨 셈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나중에 밝혀지는 것처럼, 몰리의 태도는 비록 잠정적이고 불안한 것일망정 질투에서 비롯된 질책의 태도에서 남편과 안심을 서로 주고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나중에 블룸이 몰리의 부정에 대해서 신축성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게 된 힘의 일부분은 그 자신 실수를 저지른 데 대해 거티로부터 상상적으로나마 용서를 받는 경험을 한 데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몰리가 저지른 심란한 부정에 관해 그는 네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그의 마음은 동적인 감정보다는 정적인 감정 쪽으로 기울다.

왜 질투보다 체념이고 부러움보다 차분함인가?

저지름(결혼)에서 저지름(간통)까지 벌어진 일은 저지름(교접)뿐이지만 혼인에 의해 범해진 사람을 혼인에 의해 범한 사람은 간통에 의해 범해진 사람을 간통에 의해 범한 사람 때문에 분노의 저지름을 당하지 않았다. (U 17.2195-99)

블룸이 오장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간통”에 의해 그들의 “결혼”이 결정적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는 실질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결혼”이 “간통”을 초래할 잠재성과 “결혼”과 “간통” 모두 “교접”과 관계된다는 공통성을 꿰뚫어보는 그의 통찰에서도 비롯한다. 이 점은 교리문답자가 “결혼,” “간통,” “교접”을 똑같이 “저지름”(outrage)이라 일컫는 데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저지름”이란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동적 행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범함”(violation)이 된다(Gifford and Seidman 604 참고). 달리 말해서, 정적인 결혼과 동적인 간통은 똑같이 인간 본능, 즉 “자연”(본성 nature)의 산물인 것이다. 이 점은 블룸의 차분함에 대한 교리문답자의 통찰력 있는 설명에 사용된 “자연화된 자연”(본능적으로 표현된 본성 natured nature)이라는 어귀를 통해 표현된다.

[차분함은] 비슷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남자, 여자, 남녀의 자연화된 자연(본능적으로 표현된 본성)에 따라 자연적인 사람들에 의해 자연화된 자연 속에 수행된 표현되거나 이해된 자연의 그 어떤, 모든 자연적인 행위처럼 자연적이다.
(U 17.2178-80)

교접이란, 혼인에 의한 것이건 간통에 의한 것이건,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욕구에 의해 자극되는 매우 동적인 저지름으로서, 다양한 양태로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기 쉬운 행동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잠재적 본능이 실제로 발현된 것으로서, 모든 자연적인 동물에게 공히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항시적인 자연법칙의 하나다. “자연화된 자연” 또는 “비슷하지 않은 비슷함”이란 언뜻 생소한 표현은 바로 이런 사정을 가리킨다. 블룸의 차분함은 “자연”이란 단어의 반복이 암시하듯 궁극적인 자연 질서로의 귀환이 반복될 필연성과 필요성을 그가 잘 의식하고 있음으로 말미암는다. 물리의 부정에 직면한 그의 차분함이 “변화된 생존조건에 적응하는 다른 모든 유사한 과정보다 더 비정상적일 것도 없고” “단순히 불가피해서이거나 돌이킬 수 없어서만이 아닌 것”(U 17.2190-94)으로 기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올리시스』의 맨 끝에 물리가 반복적으로 내뱉는 유명한 말 “그래(yes)”는 “자연화된 자연”에 대한 긍정, 즉 물리 자신의 표현대로 “자연만한 것은 없다”(U 18.1558-59)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리의 “그래”

는, “원래부터 블룸의 정체성을 인정했던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Cronin 96) 이자 생명의 “활기찬 지속에 대한 궁극적인 긍정”(Bowen 3)으로서, 자신에게 집이나 마찬가지로 블룸과 자연법칙으로 마침내 돌아왔음을 알리며 세상과 스스로에게 안심(재확인)을 시켜주는 선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리의 부정에 대한 블룸의 차분한 용인은 적대적이고 무의미한 역사에 대한 수동적인 굴복(Schutte 128-29)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회피의 한 사례이자 물리 자신에게는 고통의 원인”(Maddox 17)인 것은 더욱 아니다. 블룸의 차분함은 그가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귀가했음을 뜻하는데, 그 귀가는 그것을 통해 “제안되거나 필요해진 유일한 변화라고는 오직 용인—페넬로페와 칼립소의 정체성, 즉 순환이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종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체성에 대한 용인—선행되어야 할 이해뿐”(Hart 164)인 그런 귀환이다.

“귀가”는 여러 의미에서 안심을 내포하는 순환적 귀환이다. 그것은 위험한 “모험”을 마치고 익숙하고 안정된 세계로 돌아 온 후이나 가능한 안전감과 안도감을 준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준으로 삼기에 가장 이상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항구적인 자연 질서의 타당성을 재확인시켜준다. 나아가 그것은 ‘변화’를 수반하는 순환적 귀환이다. 그날 마사, 리디아(Lydia), 거터 등과 심리적인 연애를 함으로써 블룸이 “여자의 사이렌(siren) 같은 매력에 빠진 희생자가 되어 가정의 유대를 잊어버리는”(U 16.1382-83)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정적인 가정생활의 안락과 질서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나면, 전형적인 방랑자답게 “나는 머무른 다음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왔노라”(U 16.432-33)는 말을 던지며 바깥세상에서 방랑하는 동적인 모험 길을 다시 떠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그가 물리의 엉덩이에 입 맞추는 것은 결코 “타락한 용인 행위”(Herring 74)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집에서 “아내의 품만하고 침대의 온기를 품은 살의 곁에 있고 싶은”(U 4.238-39), 아침에 느꼈던 욕구를 순환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뜨거운 피가 끓는 삶”(U 6.1005)을 찾아 떠날 내일의 새로운 모험을 향한 그의 동적인 열정을 가리키는 예시적인 몸짓이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물리의 엉덩이가 방랑과 순환적 귀환을 동시에 상징하는 형상을 띤 숫자 ‘8’의 모티프의 한 변형임을 환기할 만하다(이종일 120).

조이스에게 있어서 모험과 귀가의 주제가 『율리시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모든 작품에 적용됨은 앞서 말한 대로다. 그만큼 이 주제는 조이스의 보편적 관심사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점은 이 주제가 이 소설 안에서도 이야기(행동)의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모티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예컨대, 심리적 차원에서, 블룸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다른 여자들에게 바람기 어린 관심을 보이지만, 기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물리의 존재가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법적 차원에서 술한 상징적 표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투철한 사실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언어나 문체의 차원에서도 허다한 깨진 언어나 다양한 문체의 섭렵이 표준적인 작가—혹은 ‘조정자(the Arranger)’—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작가의 전기적 차원에서도 조이스는 조국을 등지고 유럽대륙 곳곳을 유랑했지만, 그의 예술적 영감은 평생토록 고국 아일랜드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점은 모험과 귀가의 주제가 조이스의 작품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시사를 던져줄 것이라는 짐작케 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보다 큰 자리가 따로 필요할 것이다.

(세종대)

인용문헌

- 이종일. 「『율리시스』의 이체동질적 모티프와 틀」. 『제임스조이스저널』. 8권 2호 (2002): 111-24.
- Bell, Robert H. *Jocoserious Joyce: The Fate of Folly in Ulyss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 Bowen, Zack. *Ulysses as a Comic Novel*. Syracuse: Syracuse University Press, 1989.
- Cronin, Anthony. "The Advent of Bloom." *Joyc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William M. Chas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74.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Hart, Clive. "The Rhythm of *Ulysses*." *James Joyce: The Artist and the Labyrinth*. Ed. Augustine Martin. London: Ryan, 1990.
- Herring, Philip F. "Lotuseaters." *James Joyce's Ulysses: Critical Essays*. Ed. Clive Hart and David Hayman.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Penguin, 1979.
- _____. *Exiles*. London: Paladin, 1991.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Penguin, 1981.
-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London: Bodley Head, 1993.
- Kumar, Udaya. *The Joycean Labyrin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Maddox, Jr., James H. *Joyce's Ulysses and the Assault upon Character*.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78.
- Schutte, William M. "Leopold Bloom: A Touch of the Artist." *Ulysses: Fifty Years*. Ed. Thomas Staley. Bloomington and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4.

Valente, Joseph. "Beyond Truth and Freedom: The New faith of Joyce and Nietzsche." *JJQ* 25 (Fall 1987): 87-103.

Wales, Katie. *The Language of James Joyce*. London: Macmillan, 1992.

Abstract

The Motif of Adventure and Home-coming in *Ulysses*

Jongil Yi

Joyce's *Ulysses*, like his other works, thematises the motif of adventure and home-coming on the level of narrative. The protagonist Bloom leaves his home in the morning in pursuit of diverse adventures out in the city eventually to return home at night. The contrary motives from which his patterned action of adventure and home-coming arises are curiosity and reassurance, the psychological counterparts of the epistemological concepts of kinesis and stasis. While the first are centrifugal impulses entailing orderly elements such as change, unrest, and the new, the second are centripetal instincts accompanied by disorderly elements such as fixedness, stability, and the old.

The oppositional principles of adventure and home-coming, however, are not necessarily incarnated in the novel as irreconcilable; rather, they function in an interdependent and complementary way. Bloom, after coming back home from the danger of the day's adventurous incidents, finds home-life stabilising, reassuring and rejuvenating. Hence his "less envy than equanimity" in the face of his wife's infidelity. By the same token, his home-life, which, otherwise, is liable to fall into rigidity and stagnance, is helped by his curious adventures to get renewed, excited, and revitalised.

This mode of interactive relationship of adventure and home-coming demonstrates the value of dynamic tension, not binary opposition, in life between kinetic and static principles. Joyce's flexible perspective concerning the matter of kinesis and stasis finds a happy expression in "natured nature." It implies that the contingent act of sexual desire, a natural phenomenon in itself, derives from the constant law of harmony between sexes. The repeated combination of the two

seeming contraries produces, or is reflected in, the pattern of 'cyclic return with a change.'

■ Key words : kinesis, stasis, curiosity, reassurance, adventure, home-coming, natured nature, cyclic return (동, 정, 호기심, 안심, 모험, 귀가, 자연화된 자연, 순환적 귀환)

김경숙

미국 University of Utah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Joyce's Alternative Historiographies: Re-Narrating the Nation and History.” 현재 동국대학교 국제화추진단 재직중. jjoyce10@hotmail.com

이종일

영국 University of Essex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Order and Disorder in James Joyce's *Ulysses*.” 현재 세종대학교 인문대학 영어문학과에 재직중. jongilyi@sejong.ac.kr

권택영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A. Bronson Alcott's Literary Apprenticeship to Emerson: The Role of Harris's Journal, Speculative Philosophy.” 저서로는 『감각의 제국: 라캉으로 영화읽기』(민음사, 2001), 『라캉 장자 태극기』(민음사, 2003) 등이 있음. 현재 경희대 영어학부에 재직중. tkwon@khu.ac.kr

박윤기

고려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취득. 학위논문은 “제임스 조이스의 긍정적 여성관.” 현재 배재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직중. ykpark@pcu.ac.kr

손현주

영국 The 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은 “The Self and the Mother in the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Virginia Woolf.” 현재 가톨릭 대학교 외국어 교육원에 재직중. tressasohn@catholic.ac.kr